

기업 자금 '숨통' ... 가계 이자 부담 줄어

은행권 예·적금 금리 조정 검토... 다음주 추가 인하 전망 금융권 예금 금리 2% 못넘어... 집값 하락 이어질지 주목

기준금리 인하 영향은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두달 만에 또 낮추면서 역대 최저 금리를 갈아치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서둘러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이날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정기예금 주력 상품 기본금리(1년 만기 기준)는 모두 2%를 넘지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는

본격적으로 '0%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이후 한 달여 동안 은행들은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내리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0.9%, 신한은행 '신한S드림 정기예금' 0.9%, 하나은행 '하나원큐 정기예금' 0.8%, NH농협은행 'NH포디예금' 0.95% 등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이미 0%대 영역에 들어간 상태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 조정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

면 다음주부터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면서 집값 하락세가 멈출 지도 관심사다.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과 변동형으로 나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은행 예·적금 금리가 내리면 변동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주택대출 변동금리 역시 이미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어 마당에 추가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더라도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변동

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호성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은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에 대한 시자는 존재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는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예금을 가진 가계는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면서 불리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며 선제적 조치를 위해 이번 금리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등 경제정책에 대한 왜곡된 해석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8.54 (-2.66)
- ↓ 금리(국고채 3년) 0.818 (-0.045)
- ↓ 코스닥 708.75 (-15.84)
- ↑ 환율(USD) 1239.60 (+5.20)

광주은행 '청결한 동구 만들기' 동참



1기관·단체 1청결구역 협약

대인동에 본점을 둔 광주은행이 '쓰레기 없는 동구 만들기'에 동참한다.

광주은행은 송중옥(오른쪽) 행장과 임택정장이 28일 동구청에서 '1기관·단체 1청결구역 지정'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은행 본점과 동구 소재 13개 지점은 인근 청결구역 14곳을 지정

해 임직원들이 직접 환경봉사를 펼친다.

본점은 전일빌딩 245 일대와 5·18민주광장을 청결구역으로 지정했다. 임직원들은 ▲1업체 1꽃 화분 내놓기 ▲골목정원 만들기 ▲1회용품 제로운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실천한다.

송 행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봉사 활동에 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2년 역행한 제조업 경기 광주·전남 실사지수 43

광주·전남 제조업 경기가 1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8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43으로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5월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1월(BSI 41)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지역 제조업 업황BSI는 5개월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6월 업황전망BSI도 44로 지난달 전망대비 3포인트 내렸다.

전국 제조업 업황BSI는 49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업황전망BSI는 49로 지난달 전망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사회공헌 우수사무소 지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가운데)는 28일 농협중앙회 '2020년 1분기 범농협 사회공헌 우수사무소'로 선정돼 기념식을 가졌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광주 사업체 종사자 한달새 1400명 감소

코로나19 고용 충격... 전남 이직률 7.8% 전국 최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광주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전남 이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는 광주 50만5000명·전남 60만명 등 1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광주는 2000명(-0.4%) 줄고, 전남은 7000명(1.1%) 늘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광주는 1400여명, 전남은 50여명 감소했다.

광주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2월 50만4000여명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3~4월 연속으로 감소폭은 커지고 있다.

전남도 지난해보다는 종사자 수가 늘었지만 증가폭이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한편 4월 전남 이직률은 7.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이직률은 5.1%이며, 전남에 이어 세종(6.8%)→충북·충남(각 6.7%)→대전(6.5%)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6.4%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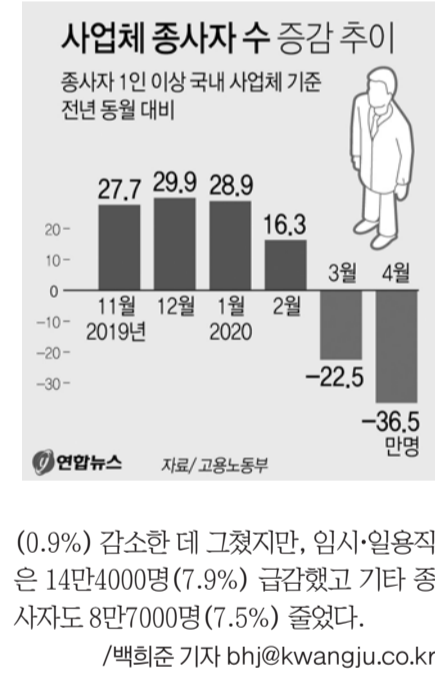
국 6번째로 이직률이 높았다.

전국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2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6만5000명(2.0%)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통계를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사업체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했으나 올해 3월 처음으로 22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이 주류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이번에도 확인됐다.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지난해보다 13만3000명



재난지원금 효과에 삼겹살·한우값 '쑥'

수요 급증에 전년비 각각 14.3%·8.6% 올라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효과로 삼겹살과 한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양돈 시장에서 팔린 삼겹살(국산 냉장) 100g 가격은 2160원으로 1년 전(1890원)보다 14.3% 올랐다.

지역 삼겹살 가격은 한 달 전(1923원)보다 12.3% 오르고, 2주 전(2100원)에 비해서는 2.9% 상승했다.

한우 역시 도축 마릿수 증가로 공급이 늘었는데도 가장 소비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양돈시장에서 거래된 한우등심1등급 100g 소매가는 7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0원)보다 8.6% 올랐다. 평년(6943원)에 비해서는 9.5% 오른 가격이다.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1월1일~5월20일)까지 전국 누적 한우 도축 마릿수는 28만8000마리로 지난해 기간보다 1.2% 늘었다.

